

“깨끗한 환경 가꾸기, 이웃사랑 실천도 건강관리”

사회봉사 활동으로 건강사회 만들기 나선 서울 11지부 의보조합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손에 의해 더럽혀지고 훼손되어진 자연은, 이제 그만큼의 고통-환경문제로 인한 건강문제 등등 –을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려주고 있다. 반대로 말해서 환경을 잘 가꾸고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자연은 그만큼의 보답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서울 제11지구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공형식)은 기존의 의보 업무 외에 깨끗한 환경 만들기 운동을 비롯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건강은 질병의 치료 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환경 ·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할 때 진정한 의미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들의 활동상을 소개한다.



『진정한 의미의
국토 청결은
몇몇 환경운동가의
솔선수범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범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공형식 11지구 의보
조합 대표이사.

●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민” 위한 업무 추진

서울시 중구 내의 사업장 근로자와 가족 19만여명의 의료복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대민 의료보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서울 제11지구 의료보험조합 공형식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50여명의 직원들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민”이라는 슬로건 하에, 혁신적인 자세로 책상에서의 업무 해결이 아닌 현장 중심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보조합의 주요 업무는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건예방사업, 고액 진료비와 노인 의료비 공동 부담 사업, 일반 의료 업무 등 매우 다양하다.

● 환경지키기, 전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 제11지구 의보조합은 이와 같은 고유의 업무 외에도 국토 청결 운동을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유엔이 환경의 날을 제정하고 지구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자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한 시점에서 우리도 국토의 청결을 지키는 일을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제안에 직원 모두가 동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 몇년간은 소규모로 주변의 쓰레기 치우기, 등산로 청소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치우는



자신의 피 한방울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11지구 의보조합
직원들은
연 2회씩
현혈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람과 오염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국토 청결은 몇몇의 솔선수범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범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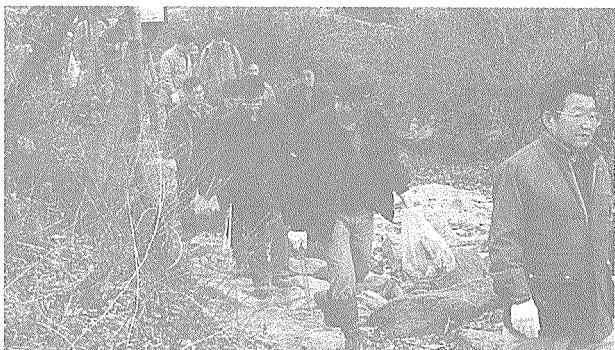
공형식 대표이사는 11지구 의보조합이 지속적인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했음일까. 때마침 서울신문사에서 깨끗한 산하자기기 운동을 주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11지구 조합 직원들은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환경지키기 실천으로 모두가 환경감시위원에 위촉되어 전 국민에게 환경 살리기 운동을 알리고 동참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을 더럽히는 일을 자제하도록 하는 일 등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랑의 생명나누기”, 현혈운동에도 동참

11지구 의보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혈액의 부족으로 수술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데 대한 안타까움, 여기에 더하여 혈액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한다는 보도를 접하자 이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다는 것.

환경을 지키는 일 못지 않게, 이웃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참된 의미의
건강관리는
질병의 치료·예방
뿐만 아니라
이땅의 건강,
이웃과의 사랑이
넘쳐나는 건강한 사회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한 직원들은 '94년부터 연 2회씩 "사랑의 생명나누기" 즉 현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신의 피 한방울이 다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진리를 이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해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11지구 의보조합의 현혈운동에 감동한 같은 건물의 다른 업체 직원들까지 참가, 풋풋한 인간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 상금으로 받은 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난 1월 25일에도 공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십여명의 직원이 현혈에 참가해 훈훈한 사랑을 나누었다는 11지구 의보조합은, 또 '95년도 조합경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들의 환경 지키기, 이웃사랑 실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장을 뛰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건강, 이웃과의 사랑이 넘쳐나는 건강한 사회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가 아니었을까. ②